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야간투시도



호수 위 도서관 품은 정자... 꽃잎처럼 흐르는 시간



〈37〉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연꽃 호수 한가운데 393.75㎡ 단층 목조 건축물

한지붕 정자 아래 도서관과 누마루 조성

전통과 현대·쉽고 지식·자연과 일체되는 경험 제공

건물 전정과 후정의 바람길, 자연 냉방 시스템 구현

주변 환경 최대한 보존...건물터 등 시간의 흐름 간직



연화정 조감도



연화정 전경.

〈태권브이 건축사무소 제공〉

전주 덕진공원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세대별 추억이 공존하는 도시공원이다. 영화 러브스토리의 한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로 낭만과 옛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전주에 산다면 젊은시절 데이트 코스로 반드시 한번 이상은 꼭 들러야 했던 곳이다. 4만 5000평의 부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연못에는 여름이면 연꽃향이 가득하고, 저녁에는 야경과 미디어아트쇼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 거대한 연꽃의 바다 한가운데 새로운 정자가 들어섰다. 이름은 연화정(蓮花亭). 단순한 정자가 아니다. 공공도서관과 누마루를 품은, 연면적 393.75㎡의 단층 목구조 건축물이다. 이곳은 덕진공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이 되고자 태어났다. 전통의 숨결과 시대의 요구를 한 몸에 담아낸, 수많은 고민과 철학이 깃든 공간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만남

연화정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의 잘 짜인 각본 같다. 멀리서 보면 차분한 팔각 지붕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건물이 'ㄱ'자 형태다. 덕분에 우리는 팔각 지붕의 웅장한 정면과 날렵한 측면을 동시에 감상하는 호사를 누린다. 건축사는 이 지점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한 가지 모습에 만족하지 말라고.

발걸음을 옮기면 비밀의 문 같은 사주문(四時門)이 나타나고, 깨진 기왓조각으로 쌓아 올린 와편담장이 길을 안내한다. 이 담장은 그냥 경계가 아니다. 걷고 싶게 만드는 예술작품이다. 담장 너머, 'ㄱ'자로 꺾인 건물은 마당을 아늑하게 품고 있다. 탁 트인 호수 한가운데서 오히려 시선을 모아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장치다. 건물 안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와편담장과 품에 안긴 마당은 우리의 호기심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안으로 이끈다.

◇45cm가 선사하는 새로운 풍경

연화정의 핵심은 누마루에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건축사의 가장 빛나는 지혜를 만난다. 누마루는 도서관보다 고작 45cm 높다. 어른 무릎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높이이다. 현대 건축에서 전망대는 수십 미터를 높여 주변을 압도하려 한다. 하지만 연화정은 계단 세 칸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풍경을 선물한다.

"고작 그 높이 차이로 뭐가 달라질까?"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서면 생각이 달라진다. 앉아서 볼 때와 서서 볼 때의 시선이 다르듯, 45cm의 차이는 연못의 수면과 눈높이의 관계를 미묘하게 바꾼다. 난간에 기대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멀리 있는 연꽃과 하늘로 향한다. 마치 내가 풍경의 일부가 되는 듯한, 고요한 몰입의 순간이다.

더욱 특별한 경험은 기둥에 있다. 건축사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을 이용해 기둥을 물속에 직접 박았다. 덕분에 누마루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보인다. 이곳에 서 있으면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는 배를 타고 풍류를 즐기던 옛 선비의 마음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물가에 정자를 짓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그대로 빌려온 것이다.

◇호수 위, 가장 특별한 도서관

연화정은 단지 경치를 즐기는 정자가 아니다. 그 절반은 책을 품은 공공도서관이다. 세상 어느 도시에 호수 한가운데에 자리한 도서관이 있을까. 이곳은 연화정의 현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심장부다.

창밖으로는 사계절의 연꽃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위로 물결 소리와 바람 소리가 곁친다. 이곳에서 독서는 글자에만 갇히지 않는다. 책을 읽다 고개를 들면, 시와 그림의 소재가 되었던 바로 그 자연이 눈앞에 있다. 연꽃의 생태에 대한 글을 읽고, 창 너머 실제 연꽃을 바라보는 경험은 지식을 넘어선 감각의 확장을 선물한다.

연화정 도서관은 '정자'라는 전통적 삶의 공간에 '공공'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더했다. 과거 선비들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 이제는 모든 시민이 지식과 사색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누마루가 밖으로 열린 사색의 공간이라면, 도서관은 안으로 향하는 집중의 공간이다. 연화정은 이 두 공간을 하나의 지붕 아래 두어, 찾는 이에게 쉽고 지식, 자연과 인간이 하

나 되는 완전한 경험을 제공한다.

◇보이지 않는 곳의 지혜

연화정은 보이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도 깊은 고민을 담았다.

첫째는 바람의 길이다. 건물 앞뒤로 전정(前庭)과 후정(後庭)을 두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선다. 앞마당과 뒷마당의 온도 차이로 공기의 대류가 일어나고, 이 자연스러운 바람이 건물을 시원하게 관통한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함을 선사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냉방 시스템이다.

둘째는 오수 처리의 묘수다. 호수 한가운데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관을 육지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거리가 상당하다. 건축사는 여기서 강수를 뒀다. 혹시 모를 미래의 막힘이나 파손에 대비해 예비 배관 하나를 더 묻은 것이다. 당장의 비용보다 먼 미래의 유지보수까지 헤아린 깊은 배려다.

셋째는 시간의 존중이다. 건축사는 새 건물을 지으며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최대한 보존했다. 덕분에 연화정은 갑자기 나타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건물터의 기억과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게 됐다.

◇실때마져 이야기로 만들겠다는 자신감

건축사 임재엽은 수많은 건축적 고민과 철학적 충돌 속에서 연화정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호수 안과 밖에서의 조망, 물속 기둥 설계, 낮은 누마루의 높이, 'ㄱ'자 꺾임부의 기둥 처리, 장애인 슬로프 문제까지, 작은 건물 구성구석에 수많은 답문이 숨 쉬고 있다.

그는 결과물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마저 후대에 "여기는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한다는 위안과 자신감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과정의 치열함과 미래와의 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연화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다. 주변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전통의 지혜를 현대로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사용자를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건축적 선언이다. 이곳을 찾는 우리는 한 채의 집이 아니라, 한 권의 잘 쓰인 책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은 우리에게 오랜 여운을 남긴다.

/전북일보=이종호 기자